

전북, ‘피지컬AI’로 30년만 미래먹거리 확보

2차 추경서 229억 확보 쾌거
8일 정동영 의원 등 기자회견
정·산·학 “AI 미래 전북에서”
道, 1조 규모 AI 국가전략거점

전북이 피지컬AI 산업의 실증 거점으로 본격 도약한다.

8일 전북자치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피지컬AI 국가전략사업 예산 확보’ 기자회견에 정동영 의원을 비롯해 국회와 산업계, 학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이번 피지컬AI 추경예산 확보를 환영하며 본격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당초 정부 추경안에 빠졌던 피지컬AI 실증 인프라 예산 229억원이 국회 과방위 예산소위 논의를 거쳐 증액 반영되면서 급물살을 탔다. 올해 예산 229억원에는 민간 및 지방재정 153억원이 매칭돼 총 382억원 규모로 집행되는데 전체 사업을 향후 5년간 총 1조 규모로 추진하며, 전북이 대한민국 최초의 피지컬AI 실증 거점으로 지정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된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피지컬 AI 핵심기술 실증(PoC)사업’ 예산 229억(총 투자규모 382억, 국비 229억(60%)+ 지방비·민자 153억원(40%))은 전북지역에 피지컬AI 기반 핵심기술 실증 거점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으로, 과기부의 ‘피지컬AI 핵심기술 PoC’ 사업에 반영된다.

정 의원은 “이번 피지컬AI 예산 확보는 새만금 이후 40년 만에 전북이 손에 잡히는 미래산업 기반을 갖춘 역사적 전환점이다”라며 “피지컬AI는 전북에서 시작해 대한민국 AI 주권을 결정짓



8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피지컬AI 국가전략사업 예산 확보’ 기자회견에 김관영지사를 비롯 정동영 국회의원, 산업계, 학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이번 피지컬AI 추경예산 확보를 환영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북자치도>

는 핵심 산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전북이 피지컬AI의 메카가 되면, 곧 세계 속의 메카가 된다”며 “새로운 전북의 미래먹거리, 전북 인구조 및 경제 부흥을 선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의원은 “AI는 한 세대가 6개월 인 산업이고, 대한민국이 AI 강국을 따라잡기 위해선 국회가 먼저 산업현장과 연결돼야 한다고 판단했다”라며 예산 확보의 배경을 밝혔다.

정동영 의원의 주도로 이뤄진 이번 기자회견 현장에는 김관영 도지사, 이성운 의원(법사법위, 전주시을) 현대차 정현구 상무, 네이버 윤희영 이사, 리벨리온 신성규 CFO, 카이스트 김경수 부총장, 성균관대 인공지능융합원 김광수

원장, 전북대 양오봉 총장이 참석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피지컬AI 핵심기술 실증사업 예산이 이번 2차 추경에 반영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당초 정부안에 미편성된 사업이 국회의 보완을 통해 최종 반영된 것은 전북의 미래를 위한 큰 전환점”이라고 했다.

이성운 의원은 “전주가 피지컬AI 산업의 전진기지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역인재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전주의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현대자동차 정현구 상무는 “모빌리티 산업이 AI와 만나 어떤 혁신을 만들어낼지 기대가 크다”며 “정부의 새로운 시책과 보폭을 맞추며 자율성·지능성·

유연성을 갖춘 차세대 생산 플랫폼 구축 가능성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윤희영 이사는 “2차 추경 피지컬AI 핵심기술 실증사업 통과를 보며 기조모델이 실제 산업과 어떤 방식으로 접점을 가질 수 있을지 가능성을 살펴볼 계기가 마련됐다”며, “산업현장에서 활용가능한 AI기술의 새로운 방향성이 제시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북대 양오봉 총장은 “전주캠퍼스 내 1천평 규모의 실증 부지를 제공하고 학생과 연구자, 참여 기업이 함께 실험하고 검증할 수 있는 현장 중심형 연구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김영목 기자

옛 전주종합경기장 부지에 ‘4성급 롯데 호텔’ 들어선다



전북도-전주시-롯데쇼핑
1,170억 규모 호텔 투자 협약
전북형 MICE 복합단지 건립

전북자치도와 전주시, 롯데쇼핑(주)이 전주의 심장부인 옛 종합경기장 부지를 문화와 관광, 전시, 체류 인프라가 융합된 전북형 MICE 복합단지로 탈바꿈시킨다.

그 상징적 중심축으로 도내 최대 규모이자 최고급 시설을 갖춘 롯데 4성급 관광호텔이 오는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번 호텔 건립은 단순한 숙박시설을 넘어, 전북의 관광 경쟁력과 국제행사 수용 역량을 동시에 끌어올릴 전환점이자 마이스 산업의 결정적 분기점이 된다.

8일 전북자치도와 전주시, 롯데쇼핑(주)은 도청 회의실에서 3자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관영 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 정준호 롯데쇼핑 대표이사를 비롯한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에 건립되는 롯데호텔은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일원, 옛 종합경기장 부지에 들어서며, 총 1천170억원이 투입된다. 호텔은 연면적 2만3천663㎡, 지하 4층~지상 14층, 총 201실 규모로 조성되며, 250명 규모 연회장, 레스토랑, 비즈니스센터, 루프탑 바, 수영장 등 고급 무대시설도 함께 갖춘다.

롯데쇼핑은 호텔 건립과 관련해 내년 착공에 들어가 2029년 하반기 준공 예정이며, 전북자치도와 전주시는 사업추진과 관련해 행정절차에 협조해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호텔이 완공되면 국제회의, 축제, 스포츠 경기 등 다양한 행사의 안정적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동안 전북 지역은 대형 행사 유치를 뒷받침할 고급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제기됐다.

특히 전주종합경기장 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은 호텔과 더불어 2028년 완공 예정인 전주컨벤션센터, 판매시설(백화점), 한국문화원형콘텐츠전시관, 전주시립미술관 등도 복합적으로 추진된다.

김관영 도지사는 “롯데호텔이 전주에 들어서면 전북의 국제행사 유치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오늘의 협약은 전주 마이스산업의 글로벌경쟁력 제고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전주시는 오늘을 계기로 1000만 관광객 도시에 걸맞는 관광 수용태세를 구축해 문화·전통·관광을 융합한 마이스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준호 롯데쇼핑(주) 대표이사는 “호텔 건립 후 전주의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도, 도시 새뜰마을사업 8년 연속 선정 ‘쾌거’

진안 군상지구 국비 31억 확보
접근성 개선, 정주환경 회복
도민 체감형 도시재생 추진

전북자치도는 8일 진안군 진안읍 군상지구가 ‘도시 새뜰마을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3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전북자치도는 도시 새

뜰마을사업에서 8년 연속 성과를 이어가게 됐으며, 도내 총 24개 지구가 해당 사업에 포함된 바 있다. 이 가운데 13개소는 사업을 완료했고, 나머지 11개소도 순차적으로 추진 중이다.

도시 새뜰마을사업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하는 국가 주도 사업으로, 도심 내 달동네·재해위험지역 등 취약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 주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체 사업비의 70%를 국비로 지원받는다.

진안군 군상지구는 급경사지와 미정비된 도로가 혼재해 보행 안전성이 취약하고, 인근 문화자산인 진안향교로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개선이 시급한 지역으로 평가돼 공모에 선정됐다.

도는 이번 공모를 위해 진안군과 함께 수개월에 걸쳐 현장조사, 주민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진행했으며, 실효

성 높은 사업계획을 통해 국비 확보에 성공했다.

이번 사업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44억 원(국비 31억 원, 도비 3.9억 원, 시군비 9.2억 원)을 투입해 △낙석방지헬스 △붕괴위험 담장 정비 △안심계단 설치 △점수리 지원 △슬레이트 지붕개량 △공평가 철거 등 기반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더불어 마을회관 신축, 주차장 조성,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등 생활 인프라 구축과 함께, 주민 건강관리 프로그램, 마을관리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주민

중심의 생활권 회복도 함께 도모할 계획이다.

도는 사업이 완료되면 마을 내 보행안전 확보는 물론, 진안향교 등 지역 문화자산과 연계한 마을 활력도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주택환경이 개선되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효과도 기대된다.

김관영 도지사는 “앞으로도 시군과 협력해 생활 인프라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지속 발굴하고, 도민 체감형 정주환경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밤에 더 빛나는 순창군 나들이 명소

강천산 군립공원

야간개장

7월 15일 ~ 8월 25일 매일 야간개장
6월 15일 ~ 11월 8일 (매주 금·토요일 야간개장)

순창군

강천산

전북자치도, 친환경 축제 통한 탄소중립 모색

김제서 첫 시군 포럼 개최 주민 참여형 자원순환형 축제 모델 공유

전북자치도가 지역축제를 탄소중립 실천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묘수 찾기에 나섰다.

도와 전북탄소중립지원센터(전북연구원은 8일 김제시청 대회의실에서 '제15차 전북 탄소중립 포럼'을 개최하고, 주민 참여형 자원순환형 축제 모델을 공유하며 지자체 간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전북 탄소중립 포럼'은 전북도의 환경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민·관 협력의 장이다. 특히 이번 포럼은 도청이 아닌 시군 단위인 김제에서 처음으로 개최돼, 탄소중립 실천 논의가 지역 현장으로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친환경 축제를 통한 탄소중립 확산

전략'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도와 시군 관계자, 전북지방환경청, 포럼위원, 탄소중립지원센터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해 사례 발표와 토론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모색했다.

첫 번째 발표에서는 강해남 김제시 자원순환과장이 김제시 '새로보미축제'를 중심으로 한 자원순환형 축제 운영 사례를 소개하며, 대화용기 사용과 음식물쓰레기 저감 등 실천 중심의 운영방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성중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부장은 분리배출 교육, 재활용 체험 프로그램, 지역 연계 캠페인 등의 사례를 소개하며 "자원순환형 축제는 지역 특성에 따라 확산 가능성이 크고, 주민 체감형 탄소중립 정책의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임성진 포럼위원장(전주대 교수)의 사회로 시군 의견에 맞는 축제형 탄소중립 실천모델



개발과 행정 간 협업 필요성, 지속 가능한 정책 설계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한순옥 전북도 탄소중립정책과장은 "탄소중립은 행정만의 과제가 아닌, 주민과 지역사회의 참여가 필수다"며 "전북도는 시군과 협력해 지역축제를 주민

참여형 탄소중립 실천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사례를 바탕으로, 각 시군 축제에 맞춤형 탄소중립 실천 모델을 접목하고 후속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김제=윤봉기 기자

전북자치도, 서울 청계광장서 대표 관광지 매력 알려

K-바캉스 캠페인 참가 SNS 이벤트 등 적극 전개

전북자치도는 8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두근두근 K-바캉스 꿀잼가득 국내여행' 캠페인에 참가해 전북 대표 관광지를 소개하는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수도권 시민을 대상으로 전북 관광의 매력을 적극 알렸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KB금융그룹, 한국관광공사가 주최하고, 9개 시도가 참여, 네이버와 네이버가 후원한 전국 단위 관광 홍보 행사로, 국내 여행 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위한 취지에서 기획됐다.

이날 행사에는 전북을 비롯해 서울, 대전, 광주, 강원, 충북, 경남, 경북 등 9개 시도가 참여해 각 지역의 대표 관광

자원과 특산물을 홍보하고 방문객들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전북자치도는 도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 전북문화관광재단, 도내 7개 시군이 협업해 전북 통합 홍보관을 구성하고 지역 특산품과 관광 기념품을 전시하는 한편, 14개 시군의 관광 정보를 담은 리플릿을 관람객들에게 배포하며 전북만의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를 집중 소개했다.

또한 현장에서는 SNS 팔로우 이벤트, 팔도마블 게임 등 참여형 프로그램도 운영돼 관람객들에게 전북 관련 경품과 지역화폐를 제공,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 현장에는 도와 재단에서 배치한 전담 인력 4명이 관람객 응대, 관광지 설명, 리플릿 제공 등 현장 마케팅을 적극 전개했다.

특히, 이날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국



회에서 열리고 있는 '국내여행을 통해 내수경제를 살리는 K-바캉스 캠페인' KBS 생방송에 현장 중계로 연결, 전북 홍보부스를 직접 소개하고 전북의 여름 바캉스 여행지를 추천했다.

김 부지사는 "전북에는 전주 한옥마을

과 군산 철길마을처럼 잘 알려진 관광지지는 물론, 무주 계곡과 부안 해변, 진안 숲길 등 자연과 체험, 휴식이 어우러진 명소가 많아 가족과 함께 특별한 전북 여행을 즐겨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자치도, 인권 행정 기반 강화

제6기 인권위원회 9개 분야 전문가 14명 위촉

전북자치도가 산업과 인구 구조의 전환기 속에서 도민 권리 보호에 중점을 두고 인권 행정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제6기 인권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도는 8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제6기 전북특별자치도 인권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하고, 위원 1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회는 위촉직 12명, 당연직 2명으

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025년 7월부터 2027년 7월까지 2년이다.

구성원은 법조, 복지, 노동, 환경, 여성, 청소년, 장애인, 이주민, 시민사회 등 9개 분야의 전문가로 이루어졌다.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신규 위원 4명과 연임 위원 8명이 포함됐다.

'전북자치도 인권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공식 자문기구로, 지난 2017년 제1기 출범 이후 자문, 제도 개선 권고, 정책 제안 등 도정의 인권정책

추진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도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인권침해나 차별을 경험한 경우 전북자치도 인권담당관실을 통해 상담과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전북자치도는 최근 이차전지, 스마트농업 등 첨단산업 유치와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추진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발 중심의 성장 전략과 함께 인권·포용을 중심으로 한 균형 있는 행정 철학이 요구되고 있다.

도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춰, 인권위원회가 정책과 행정 전반에서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방침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디지털 전환, 인구감소, 산업재편이라는 변화 속에서도 도정의 중심은 결국 '사람'이어야 한다"며 "인권위원회가 디지털 약자, 노동자,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주는 구심점이 돼달라"고 당부했다.

/김은지 기자

청년이 머무는 전북 '하우와우 미래캠프'

43명 멘토-멘티 결연 체결

청년의 실질적 성장과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하우와우 미래캠프'가 2기 출범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전북자치도는 8일 전주대학교 하림미션홀에서 청년인재 성장 프로젝트인 '하우와우 미래캠프 2기' 발대식을 개최하고, 도내 대학생 100명과 전문 멘토 43명 간의 멘토-멘티 결연을 공식적으로 체결했다.

하우와우 미래캠프는 도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신산업 분야 실무 전문가와 멘토-멘티 관계를 맺고, 팀별 프로젝트와 현장 체험 등을 통해 역량을 키우는 프로그램이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캠프에 도내 6개 대학 3학년 이상 재학생 100명을 선발했다. 청년들은 '성장 의지'와 '발전 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됐으며, 첨단산업·디지털, 에너지·모빌리티, 농생명·바이오, 로컬콘텐츠 등 4개 분과에 배치돼 분야별 전문가와 그룹 활동을 진행한다.

멘토는 전북출신 기업 대표, 연구자, 교수, 공공기관 임원 등 도내의 전문가 43명으로 구성됐다. 각 분야의 실무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청년의 진로 탐색을 돕고, 지역 산업과 연결되는 실질적 진로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들은 연말까지 캠프 운영을 통한 단기 교육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 인재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전북자치도는 이 사업을 통해 산업구조 변화와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청년정책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캠프에 참여한 청년들은 전문가와 함께 전북의 미래산업을 설계하며, 지역에서 경력을 쌓고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하우와우 미래캠프는 청년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드는 혁신 플랫폼"이라며 "전북이 진짜 '특별한 지역'이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며, 그 중심에는 반드시 청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혜민 기자

전북도, 소규모 수도 38개소 수질 실태조사

8월 15일까지 정밀 점검

전북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7일부터 8월 15일까지 도내 노후 소규모수도시설 38개소를 대상으로 수질 실태조사를 실시, 도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도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정밀 점검에 나섰다.

전북도는 수질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정수 전 항목에 해당하는 총 59개 항목을 기본 검사하고, 수원을 지하수로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 방사성 물질인 우라늄과 라돈을 포함한 61개 항목으로 검사항목을 확대해 추진

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정기적인 소독여부 △소독약품 보관 상태 등으로, 위생적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정밀 수질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점검 결과 수질 기준을 초과하거나 시설 상태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즉각 개선 조치를 권고하고, 필요시 정밀 수질검사와 기술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전경식 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도민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도물 공급을 위해 빈틈없는 수질 관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박희승 의원 "세관 수사권 확대 무역범죄 단속 강화해야"

박희승 의원(남원정수임실순창, 법제사법위원회)은 무역 거래를 악용한 경제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세관공무원의 사법경찰권을 확대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세관공무원에게 무역범죄를 수단으로 하는 보조금 편취, 재무제표 허위공시, 형법상 재산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재 자유무역협정 확대와 외환거래 규제 완화에 따른 무역환경 변화를 악용해 수출입 물품 가격을 부풀려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해외 위장회사와의

가장무역을 통해 주가를 부양하는 불공정 무역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세관에 적발된 불법영업 목적의 경제범죄 규모는 약 1조 8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법상 세관의 수사권한은 직접적인 세수 확보나 국경 보호를 위한 범죄에 한정돼 있어, 무역범죄에서 파생되는 경제범죄에 대한 수사가 지연되거나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은 "무역범죄에 대한 전문성과 법률적 권한, 무역자료를 보유한 세관의 수사권을 확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단속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김영목 기자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합시다

물놀이할 때에는 구명조끼 또는 튜브를 반드시 사용한다.

깊은 곳이나 물살이 심한 곳에 절대로 들어가지 않는다.

물에 들어가기 전 심장에서 먼 곳부터 물을 적신다.

보호자나 안전요원이 지켜보는 곳에서 물놀이를 한다.

야외에서 물놀이를 할 때는 신발을 꼭 신는다.

정해진 곳에서만 물놀이를 한다.

도 공익수당 참여 40% 증가…제도 개편 ‘성과’

농민공익수당 지급 대상 ‘농업인’ 확대로 여성·청년 포함 전년比5만 건 증가수혜 늘어

전북자치도는 2025년 농민공익수당 신청 건수가 16만8천710건으로, 전년도 12만663건 대비 4만8천47건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농민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식량안보, 환경·경관 보전, 공동체 유지 등)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로, 전북도는 지난 2020년 전국 최초로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올해는 수당 지급 대상을 기존 ‘농가’에서 ‘농업인’으로 확대하면서 신청 범위가 크게 늘어났다.

이에 따라 여성 농업인, 가족 단위 청년 농업인 등 기존 제도에서 제외됐던 계층도 새롭게 수혜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신규 창업 농업인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소지 및 농업경영체 등록 유지 요건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되었다.

지급 금액은 농업경영업체 등록 기준 1인 가구 60만 원, 2인 이상 가구는 1인당 30만 원으로, 실제 농업인 수에 따라 가구별로 차등 지급된다.

도는 7~8월 중 신청자에 대한 자격 검증 및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9월 중 최

종 대상자를 확정하고, 추석 전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민선식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전북도는 추석 전까지 차질 없이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한 행정절차를 추진 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농촌의 주인공인 농업인들의 삶이 더욱 나아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 수산물 공동브랜드 ‘해가람’, 온라인 판로 확대

전북생생장터 특별관 입점 매월 첫 주 25% 할인 쿠폰 제공

전북자치도가 추진하는 수산물 공동브랜드 ‘해가람’이 ‘전북생생장터’에 특별관으로 입점하며, 도민과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해가람’은 전북의 바다(해)와 강(가람)에서 유래한 이름으로, 신선하고 건강한 수산물을 상징하는 전북 대표 수산물 브랜드다. 2015년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현재 군산·김제·고창·부안 수협이 참여한 ‘전북자치도 수산물 공동브랜드 협의회’를 통해 브랜드 사용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전북도는 올해 상반기부터 ‘전북생생장터’ 내 해가람 특별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입점을 기념해 매월 첫째 주에는 해가람 상품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는 25%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있다. 해가람 지정 업체는 HACCP 인증이나 친환경 수산물 인증 등 국가공인 품질인증을 받은 곳으로, 최근 상반기에 2곳이 추가되어 총 29개 업체가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전북도는 앞으로도 타임 특가, 라이브 커머스, 상품 할인 이벤트 등을 통해 도내 우수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해가람’ 브랜드를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또한, 브랜드 사용 지정 업체를 대상으로 포장재 지원, 전자상거래 컨설팅 등의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해가람’ 상표 사용을 희망하는 업체는 국가공인 품질인증 취득과 도내 수산물 취급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하며, 가



전북생생장터 온라인물 해가람 특별관.

<사진=전북도>

까운 군산·김제·고창·부안 수협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미정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지정된 해가람 지정

품목은 믿고 먹을 수 있는 전북도 대표 수산물이므로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전북자치도, 익산 건설현장 안전·청렴 점검 나서

폭염·집중호우 대비 실태 점검 사전예방중심 감사환경 조성

전북자치도가 여름철 재난 예방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도내 건설현장 점검에 나섰다.

도 감사위원회는 8일 익산시 부송4지구 공공주택 건설현장을 방문해 침수 및 붕괴사고 등 이상기후에 따른 재해 예방 대책과 공사 품질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건설기술진흥법’과 전북도 감사위원회의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기술감사 시행 간격이 길어 감사를 받지 못한 채 공사가 종료되는 사례를 줄이고, 사전 예방 중심의 감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

이다. 이날 주요 점검 항목은 ▲물막이 판 설치 및 관리 상태 ▲지하주차장 배수펌프 용량 및 작동 여부 ▲수방시설 및 대피체계 ▲근로자 보호구 착용 ▲추락·붕괴 방지시설 ▲온열질환 예방조치 등으로, 여름철 안전 취약 요인을 중심으로 현장을 확인했다.

또한, 점검 이후에는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전북도가 추진 중인 ‘2025년 반부패·청렴 정책’을 소개하고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청렴 협력을 요청했다.

김진철 감사위원장은 “철저한 사전 점검과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이 인명 피해를 막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청렴문화가 현장에 뿌리내릴 때 도민의 신뢰도 함께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김영태 기자



도 감사위원회는 8일 익산 부송4지구 공공주택 건설현장의 이상기후 재해예방 대책과 공사 품질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사진=전북도>

중진공 혁신창업사업화자금 2차 추경 2000억원 편성

벤처·스타트업 집중 육성 ‘조격차 1000+’ 지원 확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강석진, 이하 중진공)은 2차 추경을 통해 혁신창업사업화자금 2,000억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중진공은 이에 따라 기술 사업성이 우수한 벤처·스타트업 집중 육성에 나설 전망이다.

지난 4일 2차 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중진공의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공급 규모는 기존 5조 6,307억원에서 5조 8,307억원으로 확대됐다.

중진공은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업력 7년 이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창업기반지원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기준금리 대비 0.3%p 낮은 금리를 적용하며, 중진공 정책자금 융자사업 중 대출금리가 가장 낮다.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시설자금은

연간 60억원까지 직접대출이 가능하다.

특히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초격차 10대 분야 창업기업을 집중 지원하며, 신산업 분야는 업력 10년 이내 기업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또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선정기업은 금리를 추가로 0.1%p 인하 받고, 운전자금 연간 최대 10억원, 시설자금 연간 최대 100억원으로 한도도 확대 적용된다.

중진공 정책자금 신청은 매월 첫째 주에 4일간 진행된다.

이번 달은 서울과 지방소재 기업 7월 7일부터 8일까지, 인천과 경기 소재 기업 7월 9일부터 10일까지 중진공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34개 중진공 지역본(지)부 또는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현진 중진공 전북지역본부장은 “미래 국가 경제를 선도할 초격차 분야의 유망 창업기업을 중심으로 지원을 한층 확대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자녀 없는 중소기업 CEO M&A로 기업승계 ‘활로’

중기부, 기업승계 M&A 지원 고령CEO 제3차 승계 성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전세희, 이하 전북중기청)은 8일 최근 후계자가 없는 고령의 CEO가 M&A를 통해 제3자 기업승계에 연이어 성공했다고 밝혔다.

인구구조의 변화로 제조 중소기업의 60세 이상 CEO 비중이 지난 10년간 2.4배로 상승해 전체의 1/3(‘12년 14.1% → ‘22년 33.5%)에 달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약 40% 이상은 승계할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승계 거부 또는 자녀의 역량 부족을 이유로 기업승계를 포기하고 있고, 그 대안으로 약 60% 이상이 전문경영인 영입, 매각 등을 고려할 만큼 제3자 기업승계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금년 1월부터 기술보증기금 내에 ‘M&A지원센터’를 설치해 일반 M&A 지원과 자녀승계가 어려운 고령의 대표들에게 M&A를 통한 제3자 기업승계를 돕고 있다. 동 센터는 △

M&A 거래정보망 운영 △중개지원 △M&A 파트너스 네트워크 구축 △M&A 보증 △기술보호(TIRS) 등 원활한 제3자 기업승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달 기업승계형 M&A 2건을 성사시켰다. 해당 기업 모두 20년 이상 업력을 가진 중소기업으로서, 60세 이상의 고령 CEO가 경영하는 제조 중소기업이다.

중기부는 향후 고령화 추세 속에서 자녀승계가 곤란한 중소기업의 M&A 방식 기업승계 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M&A를 통한 기업승계 지원 인프라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김정주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고령화 시대에서 원활한 기업승계 문제는 단순히 개별 기업 존폐 차원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고용 안정에서 중요한 정책과제”며 “자녀승계가 곤란한 중소기업이 M&A를 통한 제3자 기업승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특별법 제정과 지원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전북조달청 ‘품질보증조달물품’ 기업 신규 지정

정석케미칼 노면페인트 주원산업개발 금속제창 원진알미늄 제창 3개 선정

전북지방조달청(청장 김항수)은 공공조달의 품질을 높일 도내 3개 기업의 제품이 조달청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제품은 ㈜정석케미칼(대표 김용현) 노면표지용페인트, (유)주원산업개발(대표 박종환) 금속제창, ㈜원진알미늄(대표 원태연) 합성수지제창이다.

‘품질보증조달물품’ 제도는 조달청이 중소기업의 품질관리 능력을 심사해 고품질 제품을 지정하는 제도다.

/정소민 기자

심사등급에 따라 납품검사 면제(최대 5년), 우수조달물품 기술품질가점, 종합소평률 마크 부여, 입찰가점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공공기관 입장에서도 검증된 제품을 별도의 납품검사 없이 신속하게 구매할 수 있어, 조달행정의 효율성과 품질에 대한 신뢰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김항수 전북지방조달청장은 “품질보증조달물품 제도는 기업의 품질경쟁력 기반 조달시장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좋은 제품이 복잡한 절차 없이 공공현장에 바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진청, 양봉농가 응애약 오남용 주의 당부

미검증 응애 약제 사용 자제 천연 약제 우선 사용 권고

농촌진흥청은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검증된 꿀벌응애(Varroa destructor) 방제 약제만 사용하고, 미검증 약제 사용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농촌진흥청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꿀벌응애 약제 사용과 저항성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꿀벌응애 방제에 널리 사용되던 플루발리네이트 성분 화학 약제의 저항성이 97.7%로 나타나 꿀벌응애가 전국적으로 확산됐음을 확인했다.

이런 가운데 아미트라즈 성분 저항성의 확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양봉농가는 약제 직접 구매, 정부 구매지원, 자가 제조 등의 방법으로 꿀벌응애 방제제를 조달하고 있다.

하지만 2023년 정부에서 플루발리네이트 약제 지원을 중단한 이후 2024년에는 플루발리네이트 사용 농가 비율이 47%에서 10.9%로 줄었다.

일부 양봉농가에서 플루발리네이트를 대신해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수입 약제 사용, 규정에 따르지 않거나 용법을 지키지 않는 약제 오남용, 약제를 꿀벌 먹이에 섞어 주는 등 잘못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방제법 중에는 검증되지 않은 방법들도 있어 꿀벌응애 방제 실패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유훅 가해 꿀벌응애 <사진=농진청>

농촌진흥청은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임의 조제 약품 사용을 피하고, 기본 사양 관리로 꿀벌응애 발생 밀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꿀벌응애 약제를 사용할 경우, 개미산, 티올 등 천연 약제를 우선 사용하고 아미트라즈, 쿠마포스 등 화학 약제는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저항성 관리와 약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화학 약제를 사용할 때는 검증된 약품을 정해진 방법과 용량을 맞게 쓰고, 같은 약품을 반복 사용하는 대신 교차(순환) 사용해야 한다.

농촌진흥청 양봉과 한상미 과장은 “꿀벌응애 방제에 성공하려면, 검증된 약품을 올바르게 또는 한 가지 약에 의존하지 말고 교차 사용해야 한다”며 “꿀벌응애 방제 관련 교육과 홍보, 사양관리 기술 개발 등에 힘써 양봉농가 피해를 예방하고 양봉산업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북전주농협은 이달부터 9월까지 전주시 친환경벼 생산단지 지정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총 3회 친환경벼 생산단지 논두렁 제초사업을 실시한다. <사진=북전주농협>

북전주농협, 친환경벼 생산단지 논두렁 잡초 제거

9월까지 총 3회 전주시 진행 농촌 고령화 일손 부족 해소

북전주농협(조합장 이우광)은 7월부터 9월까지 총 3회 친환경벼 생산단지 논두렁 제초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제초사업은 친환경벼 생산단지 지정된 전주시 지역 중 일부 약 108ha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논두렁의 잡초 제거를 통해 병해충 발생을 줄이고, 친환경 벼 재배 환경을 안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해당 사업은 고령화로 인한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예초기 등 친환경 장비를 갖춘 작업 인력이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고령 농업인의 신체 부담을 줄이고 작업 효율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북전주농협 이우광 조합장은 “우리 친환경벼 재배농가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논두렁 제초사업은 고령농촌 일손부족 문제 해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해당 친환경쌀이 전주시 학교급식 사업에 전량 공급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더욱 큰 책임감을 가지고 농가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 사업을 통해 친환경 농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전북교육청, 글로벌특성화고 3개 학교 신규 선정

남원용성고·줄포자동차공고
정읍제일고…지역산업 연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전북글로벌특성화고 3개 학교를 신규 선정했다.

전북교육청은 특성화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3년 전북글로벌특성화고 10개교를 선정한 데 이어 올해 남원용성고, 정읍제일고, 줄포자동차공고 3개 학교를 추가로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23년에 전북하이텍고, 완산여자고, 원광보건고, 이리공업고, 부안제일고, 오수고, 전주공업고, 학산고, 전북유니텍고, 진안공업고 등을 선정했다.

전북글로벌특성화고는 기존 특성화고를 신산업·신기술 융합형, 지역 전략산업 연계형, 학교 자체 발전형으로 학과를 재구조화하고, 학교별로 신산업·신기술 테마가 담길 수 있도록 학교명과



줄포자동차공고 실습사진

<사진=전북교육청>

학교명 변경을 추진하는 것이다.

지난 2023년 선정된 학교들은 안정적 인 학과 운영과 현장 맞춤형 교육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신규 선정으로 지역 산업과 연계한

직업교육을 한층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남원용성고등학교는 (가칭)케이팜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고 △스마트팜과 △드론팜테크와 △카페플라워를 신설해 스마트농업 관련 학과로 재구성

한다. 정읍제일고등학교는 (가칭)전북반도체고로 새출발한다. 반도체장비과와 반도체제조과를 신설하여 반도체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줄포자동차고등학교는 (가칭)전북자동차고로 이름을 바꾸고 오토테크장비과, 오토컬러도장과를 신설해 자동차 정비와 도장 분야에 특화된 실무 인력을 집중양성할 계획이다.

신입생 모집은 줄포자동차공업고등학교는 2026학년도부터, 나머지 학교들은 2027학년도부터 새로운 학과 체계로 신입생을 모집한다.

전북교육청은 선정된 학교들이 해당 분야 전문 인재를 안정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학과 재구조화에 필요한 실습실 구축, 기자재 확충, 교사 역량 강화, 산학점임교사 확보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최성민 기자



제10회 전북청소년모의유엔회의 개최

국제무대 경험

국제 무대를 향한 전북 청소년들이 제10회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 모의유엔회의에 참여해 국제 이해도를 높이는 기회를 가졌다.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이 지난 7일 원광대에서 주최한 '제10회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 모의유엔회의'가 도내 21개 중·고교 대표 72명이 참석해 '유엔 체제 내 정책 및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세계 청소년들의 참여 방식'을 주제로 열린 토론과 합의안을 거쳐 공동 선언문과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회의는 유엔 창설 80주년, 전국 대학생 모의유엔회의의 30주년, 그리고 전북 청소년 모의유엔회의의 10주년이라는 상징적인 해에 개최되어 더욱 뜻깊은 의미를 더했다.

특히 전국 대학생 모의유엔회의와 동시 개최돼 참가 청소년들은 대학생 회의와 일부 참가하며 국제회

의의 실제 운영 방식을 보다 넓은 시야로 체험했다. 제1·2위원회로 나뉜 청소년 대표단들은 유엔 회의 형식을 준용하여 각국의 입장을 대변하고, 조별 협의와 결의안 채택 등 전 과정을 직접 수행했다.

제1위원회 수상자는 △전북자치도지사상에 화산중 김서진, 김가진 △전북자치도교육감상 전주서신중 양정연, 정세연 △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상 화산중 박민찬, 김태윤 제2위원회는 △전북자치도의회의장상 전북제일고 문효원, 박재현 △전북자치도교육감상 화산중 소현수, 박하은 △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상 전주송내고 박현진, 송지성 등이 차지했다.

송기택 교류협력실장은 "10주년을 맞이한 올해는 국내외 국제협력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글로벌 역량 강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밝혔다.

/정혜민 기자

전북교육청, 폭염 대비 “학생·교직원 안전 대비 강화”

재난업무 담당자 긴급회의
폭염 대응 행동요령 강조

때이른 폭염이 계속되면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폭염 안전 대비를 강화한다.

전북교육청은 연일 폭염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관리를 위해 8일 창조나래 5회의실에서 시·군 지역교육청 담당자 긴급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유정기 권한대행도 전날 전략회의에

서 “일사병이나 식중독, 익사 사고 등 여름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부서는 대책을 마련하고 학교 지원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전북교육청은 이미 지난 5월부터 폭염에 대비해 냉방시설 및 전력 설비를 점검하고, 기온상황 및 폭염 재난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폭염 대응 행동요령 교육 △냉방시설 및 전력 설비 고장 시 대응 방법 △학사운영 조정 검토 △재난 발생시 상황 안내 보고 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가정통신문 및 보건교육, 교내 방송 및 전광판 등을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폭염 대응 행동요령을 교육·홍보하도록 안내했다.

폭염특보 단계에 따른 조치 사항도 전달했다. 학교 여건을 고려해 단축수업, 휴업 등 학사운영 조정을, 폭염경보가 1주일 이상 지속시 조기방학도 검토할 수 있다.

전북교육청은 오는 9월 30일까지를 폭염대응 기간으로 정하고 비상 단계별

로 전담반을 구성, 교육부·교육지원청·각급 학교와 24시간 비상연락이 가능한 상황보고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장경단 학교안전과장은 “우리 교육청은 폭염으로 인한 학생과 교직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폭염 재난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며 “폭염에 대한 효과적인 대비·대응을 통해 학생·교직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정상적인 학교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도교육청, ‘수능 한등급 올리기 90일 프로젝트’ 가동

업무담당자 대상 설명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수능한등급올리기 90일 프로젝트’ 본격 추진을 앞두고 업무담당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했다. 8일 베스트웨스턴호텔 1층 베스트홀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프로젝트 참여를 신청한 도내 57개 고등학교 업무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수능한등급올리기 90일 프로젝트’는 수능까지 남은 약 90일 동안 학생 개개인의 맞춤형 학습을 밀도 있게 지원해 실전 감각을 극대화하고, 전략 영역을 보완해 수능 한등급 상승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이다.

수능을 앞둔 고3 학생들의 맞춤형 학

습지원을 위해 지난해 ‘수능한등급올리기 80일 프로젝트’로 처음 도입했으며,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올해는 그보다 10일 앞선 90일 프로젝트로 운영한다. 올해는 도내 57개교 1,633명 학생을 대상으로 오롯이 수능 성적 향상에 집중함으로써 남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프로젝트 참여 학생들은 (가칭)수능등급올림반의 맞춤형 학습지원을 받는다. 학생들은 전략영역을 정하고, 교사와 함께 등급 향상을 위한 약점 분석 및 보완 계획을 세우고 90일간 전략영역이 목표 등급에 도달하도록 지원받는다.

/최성민 기자

전북대 중앙도서관, ‘책 쓰기 프로젝트’ 운영

전북대학교 중앙도서관(관장 설동훈)이 지역민과 학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누구나 책을 쓰고 작가가 될 수 있는 ‘책쓰기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도서관, 지역과 함께 쓰다 - 책쓰기 프로젝트」로, 오는 7월 23일부터 8월 27일까지 매주 1회 온라인 실시간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자는 글쓰기 숙련도에 따라 스타트반과 레벨업반으로 나뉘며, 각 반당 10명씩 총 20명을 모집한다. 이 중 40%는 지역주민을 우선 선발해 지역사회와의 연계성을 높일 방침이다.

교육은 신춘문에 등단 작가의 지도

아래 진행되며, 참가자들은 1:1 피드백을 통해 글의 완성도를 높이고, 프로젝트 종료 후에는 각 분반별로 하나의 책을 출간해 참가자 모두가 ‘작가’가 되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완성된 책은 전북대 도서관 장서로도 등록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오는 8일 오전 10시부터 16일 오후 6시까지 전북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설동훈 관장은 “이번 책쓰기 프로젝트가 지역민의 인문학적 역량을 높이고, 독서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성민 기자

군산대, 제주 국토대장정 ‘폭삭 걸었수다’ 출정

국립군산대학교는 지난 7일 대학본부 4층 대회의실에서 ‘2025학년도 국립군산대 국토대장정 발대식’을 개최하고, 참가 학생들의 안전하고 의미있는 여정을 기원했다.

2025학년도 국토대장정은 국립군산대학 총학생회가 주관하고 학생처의 후원 아래 진행되며, ‘폭삭 걸었수다’는 주제로 오는 14일부터 7월 18일까지 4박 5일간 제주도를 도보로 횡단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발대식에는 참가 학생 42명과 교직원, 총동문회 임원진 등이 함께했으며, 행사 아래 진행된 ‘폭삭 걸었수다’는 제주 방언으로 ‘정말 많이 걸었다’는 뜻을 담고 있으며, 학생들이 자연 속에서 공동체 의식을 키우

고, 도전 정신과 체력을 기르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 위한 취지로 기획된 약 100km의 도보 여정으로 구성됐다.

국립군산대 엄기욱 총장 직무대리는 격려사를 통해 “국토대장정은 단순한 걷기 행사가 아니라, 공동체 정신을 배우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소중한 기회이다”며 “여러분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미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고 강조했다.

국립군산대 총학생회 임주예 회장은 “이번 국토대장정은 학생들이 하나 되어 협력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다지는 시간이 될 것이다”며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더 단단해지는 시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민관이 함께 만든 안전도시 익산시, 유공자 표창 수여

익산시가 재난에 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함께해 온 유공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시는 8일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참여해 실천 대응 능력 향상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날 수여식은 익산시청에서 열렸으며, 훈련에 적극 참여한 13개 기관·단체 소속 20명이 표창을 받았다. 이들은 훈련의 기획부터 현장 대응까지 각자의 위치에서 책임감 있게 역할을 수행하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시는 앞서 5월, 집중호우 상황을 가정한 재난대응 훈련을 통해 △초동 대응 △인명 구조 △이재민 대피 △수습·복구 등 재난 초기부터 복구 단계까지 전 과정을 실천처럼 진행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만큼 반복적인 훈련과 철저한 준비가 가장 중요한 대응책”이라며 “표창을 받은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이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든든한 기반이 되고 있다”고 격려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공모

군산시가 노후 공동주택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2026년도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공모를 내달 14일까지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으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모두 포함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250세대 미만은 85㎡ 이하)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50% 이상일 때 해당된다.

단, 임대주택과 지난해 기준에 최근 5년 이내에 보조금(국·도·비 포함)을 지원받은 단지는 제외된다.

지원금은 단지별 지원기준에 따라 최대 3천만 원까지 받게 된다. 시는 2026년도 예산편성을 통해 지원 규모 확정 후 내년 1월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청은 오는 14일부터 8월 14일까지 주택행정과 공동주택지원계로 접수하면 된다.

/군산=지송길 기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익산 어르신 위한 특별한 공연

익산시에서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뜻깊은 공연이 열렸다. 시는 원광대 문화체육관에서 노인일자리 참여자 2,800여 명과 함께한 ‘효(孝) 힐링콘서트’가 진행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무더운 여름 어르신들의 심신 안정과 삶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광효도마을시니어클럽(관장 신이원)과 전북익산시니어클럽(관장 김윤경)이 공동 주관하고, 익산의 대표 문화예술단체 룩스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참여했다.

정현을 시장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익산=최준호 기자

달콤한 익산 고구마, ‘맥도날드’와 만남

고구마 모짜렐라 버거·머핀 10일 전국 400여 매장 출시

익산 고구마가 세계적 외식 기업 ‘한국맥도날드’와 만나 전 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다.

8일 익산시에 따르면 한국맥도날드는 오는 10일 전국 400여 개 매장에서 신제품 ‘익산 고구마 모짜렐라 버거’와 ‘익산 고구마 모짜렐라 머핀’의 판매를 시작한다.

이번 신제품은 2021년부터 맥도날드가 시작한 ‘한국의 맛(Taste Of Korea)’ 캠페인의 다섯 번째 주인공이다. 달콤한 익산 고구마와 고소한 모짜렐라 치즈의 환상적인 조화가 특징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역 농산물을 전국 단위의 판매망과 연결함으로써 농산물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농산물 소비 활성화와 농가소득 안정화를 이루는 데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연초부터 고구마 재배 농가·농협 등과 수심 차례 협의의 과정을 거쳤으며, 실제 이번 협력으로 익



산에서 200여 톤의 고구마가 소비됐다.

익산 고구마는 미르산을 중심으로 펼쳐진 비옥한 황토밭에서 재배되는데, 당도가 높고 식감이 부드러워 전국에서 품질 좋은 고구마로 인정받고 있다.

‘익산 고구마’의 명성에는 익산시와 지역 농가의 정성 어린 노력이 깃들여 있다. 우선 익산시는 바이러스에 강한 조직배양묘를 공급하고 비료나 농약 등 필요 농자재도 함께 지원해 건강한 고구마를 생산하도록 돕는다.

각 농가에서는 겉흙과 속흙을 바꿔주

는 심도반전 작업을 통해 연작 장애와 병해충을 예방하고, 생산량을 늘리는 등 체계적 재배 관리에 힘을 쏟고 있다.

한편 맥도날드 익산영등DT 매장에서 판매 첫날에 한해 ‘익산 고구마 모짜렐라 버거’ 구매자 중 선착순 300명에게 소정의 상품을 증정한다.

또 익산시는 7월 말까지 고향사랑기부제에 10만 원 이상 기부 시 이벤트 상품으로 ‘익산 고구마 모짜렐라 버거 세트’ 쿠폰을 증정할 계획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최종보고회 개최

수요응답형 교통사업 등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도약

정읍시가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도시 중장기 계획을 확정하고 본격 실행에 나선다.

시는 지난 7일 오후 4시, 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정읍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계획은 올해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추진될 정읍형 스마트도시 전략과 실행계획을 담고 있다.

보고회에는 이학수 시장을 비롯한 시 간부공무원과 용역 수행기관인 대영유비텍㈜, ㈜아이나래컴퍼니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간의 과업 추진 경과와 최종 계획안 발표 이후에는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이번 스마트도시계획은 △도로·교통 △환경·안전 △문화·관광 △건강·복지 △행정·산업 등 5개 분야에서 총 22개 스마트 서비스로 구성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수요응답형 교통(DRT) △디지털터원 기반 재난·재해 대비 시스템 △반려동물 놀이터에 ICT 기술 접목 △빅데이터 기반 플랫폼 구축 등이 포함돼 시민 생활 편의를 높이고 도시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계획을 지난 6월 국토교통

부로부터 승인받았으며, 스마트도시법 제10조에 따라 공고도 완료했다. 향후에는 연차별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국비 공모사업과 연계해 부서별 세부 실행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계획은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정읍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이라며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정읍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민·관 협력체계를 중심으로 실행력 있는 민·관 거버넌스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찾아가는 모두의 소통버스’ 군산에서 열린다!

국정기획위 주관 주민 관심·참여 촉구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가 오는 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군산시청 4층 상황실에서 ‘찾아가는 모두의 소통버스’를 운영한다.

‘찾아가는 모두의 소통버스’는 온라인 국민 소통 플랫폼인 ‘모두의 광장’의 오프라인 연계 프로그램으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전국 거점도시를 선정·방문하는 현장형 상담 제도다.

이번 상담을 통해 단순 질의나 현장조치가 가능한 사안은 즉시 처리하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접수해 앞으로 절차에 따라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국정기획위원회는 현장에서 수렴한 의견·제안을 정책에 반영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현장 접수는 군산시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구 주민들도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민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국정기획위가 시민들의 제안을 현장에서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에 감사하다”라며 “이번 기회에 많은 주민이 현장에 찾아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통합건강증진사업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방문건강관리사업’ 우수기관 맞춤형 건강미션인센티브 운영

정읍시가 인공지능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성과를 인정받아 전국 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시는 지난 3일 서울 SC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7회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에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략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성과대회는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우수하게 수행한 지자체를 포상해 모범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우수사례 발표와 건강증진사업 최신 동향 공유도 함께 이뤄졌다.

시는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방문건강관리)’ 분야에서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 사업은 고령자의 건강행태와 하악



정읍시는 지난 3일 ‘제17회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에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략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사진=정읍시>

정도를 기준으로 비대면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다.

시는 지난 한 해 동안 65세 이상 어르신 194명을 등록·관리하며, 맞춤형 건강미션과 인센티브를 운영해 고혈압 조절률을 기존 49%에서 78%까지 끌어올리는 성과를 냈다.

손희경 시 보건소장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춰 노인 건강증진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시민의장 수상 후보자 공개모집

31일까지 시청 방문·우편 제출

군산시가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명예를 높이는데 공헌한 시민에게 수여하는 ‘군산시 시민의장’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다.

추천 부문은 문화·예술·체육장, 애향·봉사장, 산업장, 노동장, 효열장, 시민안전장, 보건환경장, 교육장, 농업수산업장 총 9개 부문으로 부문별 1명씩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후보자 자격은 공고일 현재 군산시에 거주하거나 출신자로 해당 분야에서 뛰어난 공적이 있는 사람이

여야 하며 추천권자의 추천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추천권자는 기관장, 기업체장, 사회단체장, 대학교 총장, 시민이 할 수 있으며 시민 추천의 경우 공고일 이후 시민 30명의 연서를 받아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후보자의 추천서, 공적조서, 공적 증명서류 등을 갖춰 7월 31일까지 군산시청 행정지원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시상은 오는 9월에 개최되는 제 63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현을 익산시장 “국정 반영 핵심사업 철저히”

주요 사업 대응체계 강화 지시

“기회는 준비된 도시에게만 의미가 있습니다.”

정현을 익산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 가동에 발맞춰 지역 핵심사업의 철저한 관리와 전략적 대응을 주문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지난 7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가 방향을 확정짓기 전에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 익산시의 핵심사업이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 부서가 긴밀히 대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시장은 특히 “이미 추진 중인 주

요 사업과 신규로 발굴한 핵심과제들이 중앙정부 정책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라”며 “중앙부처와의 소통은 물론, 정책자료 준비와 대응논리 마련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시는 △환경자연환경복원사업 △의산역 광역환승체계 구축 등 지역의 미래를 건인할 11개 과제를 전략적으로 관리해 왔다.

시는 앞으로도 관련 부서별로 사업 타당성 확보와 부처 협의, 정치권 공조 등을 통해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전방위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시청소년의회, 1년간 자치 여정 마무리

익산시청소년의회가 청소년 정책 참여 기반을 다지는 1년 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시는 8일 익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1대 익산시청소년의회 정례회 및 해단식’을 개최했다.

익산시청소년의회는 청소년의 실질적인 참여권을 보장하고, 주도적 자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출범했다.

이날 행사는 2024년 출범한 제1대 청소년의원들이 그간의 활동을 돌아보는 마지막 정례회와 함께 공식 임기를 마무리하는 해단식으로 마련됐다.

익산시청소년의회는 총 20명의 청소년의원으로 구성돼 △문화예술 △교육복지 △환경행정 3개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동을 펼쳐왔다.

청소년의 시각에서 지역의 정책과

제도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고, 캠페인과 토론회를 직접 기획·운영하며 주도적인 자치활동을 이어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그간의 활동을 보고하고, 마지막 정책 제안 발표와 실제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도 함께 진행했다.

이와 함께 해단식에서는 청소년의원의 소감 발표가 이어졌으며, 모범적으로 활동한 우수 의원에게 표창이 수여돼 의미 있는 마무리를 장식했다.

최승원 청소년의회 의장은 “처음 출범한 익산시청소년의회에서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활동한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며 “앞으로 청소년의회가 더욱 알찬 활동을 통해 익산 청소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미 있는 기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 미래가 시장실에 … 초등학생 시정 체험

정읍시청에 초등학생들이 직접 찾아 시장과 대화하고 시정을 배우며 행정을 생생히 체험했다.

정읍시는 8일, 서신초등학교 2학년과 4학년 학생 7명을 초청해 시정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날 학생들은 시장실 방문을 비롯해 시청 청사 곳곳을 둘러보며 시청 운영에 대해 배우고, 행정 업무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어린이들이 행정을 보다 쉽고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학생들은 먼저 이학수 시장에게 직접 쓴 손편지를 전달했고, 시장실을 돌

러보며 정읍시의 주요 정책과 시장의 일상 업무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학생들의 손 편지에는 “신나게 놀 수 있는 공원이 좋아요”, “음악분수와 캠핑장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놀이터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같은 바람이 담겼다. 또 ‘정읍이 발전한 건 시장님의 의지와 끈기 덕분이에요’, ‘학교를 널리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처럼 진심 어린 응원도 전해졌다.

시는 이번 체험이 어린이들에게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자긍심을 키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읍=김정인 기자

고창군, 21일부터 1차 소비쿠폰 지급

일반 20만원
한부모가족 35만원
기초수급자 45만원

고창군이 민생경제 회복과 군민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책으로 오는 21일부터 전 군민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소비쿠폰은 1, 2차로 나눠 지급된다. 1차 지원은 오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일반 군민 20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35만원, 기초생활수급자 45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2차 지원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되며,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2차 지급에 대한 세부 사항은 추후 별도 안내할 계획이다.

소비쿠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이며, 고창군 관내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특히, 고창사랑카드로 신청한 경우, 고창사랑상품권 등록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소비쿠폰은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 소멸된다.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NH농협·전북은행), 고창사랑상품권(카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고창사랑카드로 신청할 경우, '고향사랑페이'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군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군민 편의를 위해 오는 14일부터 '국민 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신청 대상 여부와 지원 금액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고창군은 문자에 포함된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해 악성코드를 설치하고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스미싱' 피해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와 고창군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URL이나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일체 발송하지 않으며, 각 카드사 또한 관련 문자를 보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소비쿠폰은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동시에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회복 정책이다"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꼼꼼히 추진해 소상공인의 재도약을 든든히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군은 민생 회복 소비쿠폰 외에도 △고창사랑상품권 평시 10% 할인 정책 △소상공인 용자 및 이차보전 지원 확대 등 소상공인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고창=백종규 기자

전 세계 청년들, 카메라에 김제 담는다

다큐멘터리 제작지원
글로벌 관광 발굴 본격화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지역의 문화와 공동체, 관광자원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다큐멘터리 제작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제작에는 10개국에서 온 외국인 청년들과 국내 청년들이 함께 참여해 김제의 일상과 문화, 자연을 직접 체험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광활성화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과정이 생생하게 담길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영상 제작을 넘어 '글로벌(글로벌+로컬)' 청년들이 김제에 머물며 지역민과 교류하고, 로컬 콘텐츠를 재발견하는 다문화적 시도로 주목받고 있다.

참여 청년들은 김제의 전통시장, 농촌마을, 문화유산지 등을 방문하고 지역민들과 함께 살아보는 '로컬 체험살기'를 통해 지역의 진면목을 카메라에 담는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시선



김제시가 지역의 문화와 공동체, 관광자원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다큐멘터리 제작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사진=김제시>

으로 재해석된 김제의 매력을 발굴하고, 그들이 제안하는 관광 콘텐츠 아이디어를 향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며, 완성된 다큐멘터리는 국내외 방송 및 OTT 플랫폼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 다큐멘터리는 단지 지역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

고, 전 세계 청년들이 김제에서 직접 살아보며 제안하는 실질적인 관광 콘텐츠와 정책 아이디어가 담길 것"이라며 "청년세대와의 협업을 통해 김제 관광의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김제시, 생활여건 개선 2개 마을 선정

국비 등 42억원 확보
월현리·종신리 환경 개선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주관한 '2026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청하면 월현리와 죽산면 종신리 2개 마을이 선정돼 사업비 42억원(국비 29억원)을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22년부터 매년 본 사업에 마을이 선정되고 있으며, 이번 추가 선정으로 총 6개 마을에서 농어촌 취

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30가구 이상 농어촌 마을 중 노후 주택(30년 이상) 비율이 40%이상이거나 슬레이트 지붕 주택 비율이 40%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위생·안전 기반시설 구축, 주택 정비, 빈집 철거, 주민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번에 선정된 월현마을과 종남마을에 대해 오는 2026년부터 2029

년까지 4년간 △생활·위생·안전 인프라 확충 △주택정비 △마을환경개선 등의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5년 연속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덕분"이라며, "2029년까지 취약 마을의 생활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총심히 추진하겠다. 앞으로도 대상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농촌지역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농가 역량강화

품질 확보·안전성 강화
소비자 신뢰도 ↑

부안군은 8일 석정문화관에서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의 내실을 다지고 출하 농가의 역량강화 및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위해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신규 출하를 희망하는 농가와 기존 정기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농가를 대상으로 농산물의 품질 확보 및 안전성 강화를 강조하며, 직매장

운영 지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실무 중심의 교육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번 보수교육은 로컬푸드 직매장이 지난 1일 정식 개장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출하 농가 교육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600여 농가 등의 참여와 7,600여명의 회원수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부안 로컬푸드 직매장은 우리 지역 농산물의 소비 확대와 군민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서 더욱 철저한 출하 기준

으로 안전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농가 역량을 강화해 갈 예정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이 생산되도록 책임감을 꼭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육과 관리를 통해 농가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신뢰 기반의 로컬푸드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농악전수관 숙소동 '고운채' 개관

전수생 교육·숙박 여건 개선

고창농악전수관의 최신식 숙소동 '고운채'가 완성되면서 유네스코 세계인류무형유산 '고창농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8일 고창군에 따르면 전날 오후 성송면 고창농악전수관에서 숙소동 고운채 개관식이 열렸다.

심덕섭 고창군수와 조민규 고창군의회 군의장 및 군의원을 비롯한 고창농악보존회원과 전수생 등 15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고창농악전수관 고운채는 총 27억여원의 사업비를 들여 연면적 507.85㎡에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졌다.

동시에 1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식당과 6인실 숙소 12실, 세탁실 등으로 구성돼 지난해 9월 착공해 이날 개관했다.

'고운채'는 고창다운집이라는 의미로 고창농악전수관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고창을 집으로 느끼고 고창농악을 체험하는 경험을 넘어 고창사람이 돼 고창농악을 향유하는 주체가 되길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있다.

영무장(영광, 무장, 장성) 농악의 정통계보를 잇는 고창농악은 전국 각지에서 연수생들이 모여 고창농악만의 특징인 고깔소고춤과 잡색놀이 등을 배워가고 있다.

이번 숙소동 신축을 통해 고창농악의 전승 기반을 강화하고 전수생의 교육·숙박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농악전수관 숙소동 신축이 세계인류무형유산이자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인 농악 전수에 더 많은 애호가들이 참여해 고창농악의 품격과 장단을 즐기고 배우며 더욱 계승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확대

9개 업체·15개 품목 추가 선정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고향사랑기부자에게 다양한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해 9개 업체, 15개 품목의 답례품을 추가 선정했다.

시는 지난 2일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이 자리에서 9개 업체, 15개 품목의 답례품을 추가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답례품 및 공급업체는 △건표고버섯(농업회사법인행복

뜰) 등 산물 4종, △전통주(지애의봄향기) 등 가공식품 4종 등 체험상품 3종으로, 이달 안으로 공급업체 계약 등 필요 절차를 거친 후 고향사랑e음 답례품몰을 통해 본격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추가 선정으로 시가 제공하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은 이번에 추가 선정된 품목과 공급 계약이 해체된 품목들을 반영하면 7월부터 총 40개 업체, 52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 구시포·동호 해수욕장 10일 개장

8월 18일까지 운영

한여름의 뜨거운 태양 아래, 시원한 파도와 고운 백사장이 펼쳐진 전북 고창군의 명품 해수욕장이 활짝 문을 연다.

8일 고창군에 따르면 서해안 최고의 피서지인 구시포·동호 해수욕장이 오는 10일부터 8월 18일까지 40일간 운영된다.

군은 샤워장, 화장실 등 주요 편의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해리면과 상하면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특히 안전한 물놀이 환경을 위해 전문 안전관리요원 8명을 배치하고, 수상오토바이와 고무보트를 활용한 해상순찰도 가동된다. 구시포해수욕장은 낙조가 아름답기로 유명한 사진작가들과 연인들의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의 해수욕장은 단순한 여름 휴식처를 넘어,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힐링 공간이다"며 "방문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류신욱 씨, 전주대사습놀이 농악부 개인상

부안군립농악단 소속

부안군은 부안군립농악단 소속 류신욱씨가 최근 전주에서 열린 제51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에서 농악부 개인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국내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전통예술 경연무대에서의 이번 수상은 지역 전통문화의 우수성과 류신욱씨의 예술적 기량을 전국에 다시금 알리는 쾌거로 평가된다.

류신욱 씨는 1985년 고은(高恩) 이동원 선생의 제자로 입문해 본격적인 농악 수련을 시작했으며 부안 우도농악의 전통 맥을 잇는 대표적인 젊은

예술인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 류신욱씨는 역동적인 장구 연주로 깊은 예술적 해석력으로 심사위원단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류신욱씨는 "고은 이동원 선생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부안 우도농악의 맥을 물려받게 되었고 노력하고 있다"며 "공연뿐 아니라 교육 현장에서도 전통의 가치를 나누는 농악인이 되고 싶다"라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전통을 사랑하고 실천해 온 지역 예술인의 값진 성과"라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풍천장어생산자협, 어린뱀장어 6만마리 방류…자원회복 기대

풍천장어생산자협회(대표 유삼경)가 뱀장어 자원회복을 위한 민물장어 방류를 실시했다.

이번 방류에는 전북특별자치도(전북도 기술연구소), 고창군 해양수산과, 고창수협을 비롯해 고창군 어촌계협의회 등 수산단체들도 함께 참여했다.

양만어가들이 직접 사육하고 있는 어린뱀장어 약 6만마리를 방류했다.

뱀장어는 2014년 국제자연보존연맹(IUCN)의 '적색목록'에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됐으며 올해 11월 CITES 부속서 등재가 재논의될 예정이다.

현재 국내 뱀장어 양식업은 2024년 기준 약 5140억원의 소득을 창출하는 내수면 어업 전체 생산금액의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중이 매년 높아지고 있는 대표 내수면 업종이다.

이처럼 경제적 가치가 높은 뱀장어는 민물에서 서식하다가 산란을 위해 바다로 내려가는 대표적인 강하성 어류다. 뱀장어 양식은 우리나라로 회유하는 실뱀장어를 포획하거나 중국, 대만 등에서 수입한 실뱀장어를 활용하고 있다.

유삼경 풍천장어생산자협회 대표는 "뱀장어 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생산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게 됐다"며 "이번 방류를 통해 뱀장어 자원회복에 대한 생산자들의 의지를 보여주고, 향후 체계적인 자원관리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청소년안전망가족관계 향상지원 프로그램 운영

부안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5~6일 1박 2일 동안 관내 청소년 가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안전망 가족 관계 향상 지원 프로그램 '우리 가족 행복 공감 캠프'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가족 관계 개선을 위한 부모 교육, 글램핑 체험, 명상 및 족욕, 가족 사진 촬영 등 다양한 활동으로 가족의 의미를 생각하고 가족 결속력 증진에 목적이 있다.

캠프에 참가한 부모님은 "부모 교육을 통해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며, 가족 캠프는 가정내 행복의 기준을 찾아가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부안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위기(가능)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청소년뿐 아니라 그들의 환경인 가족의 건강한 보호 속에 성장할 수 있도록 가족 관계 향상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 백구면 복지기동대 거동불편 어르신 안전손잡이 설치

김제시 백구면 행정복지센터는 8일 복지기동대(대장 유종환)와 맞춤형복지팀이 폭염으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거동불편 어르신 40세대를 방문해 안전손잡이 설치 봉사활동을 펼치고 예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어르신들의 고령화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늘어나며 화장실에서 넘어지는 등 위험한 순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복지기동대가 대대적인 안전손잡이 설치 봉사를 추진하게 됐다.

이번 봉사로 안전손잡이를 설치 받게 된 한 어르신은 "나이가 들다 보니 일어서거나 앉을 때 힘이 부치는 일이 많았는데, 이렇게 안전손잡이를 설치해주니 훨씬 힘이 덜 들겠다"며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유종환 복지기동대장은 "지속적이고 꾸준한 봉사로 백구면의 어르신들이 더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해 듣는 이들에게 훈훈한 감동을 주었다.

/김제=온봉기 기자

순창군, 고령 영세농 버 농작업비 지원

대행비로 농촌 고령화 대응 일손 부족 해소·경제 부담 덜어

순창군이 농촌 고령화 심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과 농업인 경영 안정을 위해 고령 영세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버 농작업 대행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순창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돈 버는 농업’ 정책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 고령화로 인해 직접 농작업이 어려워진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벼농사의 경우 이양부터 수확까지 상당한 체력과 기술이 요구되는 만큼, 고령 농업인들에게는 전문 농작업 대행 서비스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기준 만 70세 이상으로,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2개월 이상 거주한 농업인이다. 다만 농업 외 연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농업경영체 등록이 없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규모는 버 재배 면적 1,000㎡ 이



순창군은 고령 영세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버 농작업 대행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순창군>

상 5,000㎡ 이하의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당 115원을 지급해 최대 57만 5천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실제 농작업 대행 비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금액으로, 농가의 경영비 절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군은 지난해에도 동일한 사업을 추진해 총 472농가에 1억 3,3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참여 농가로부터 경제적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바 있다.

신청은 오는 8월 8일까지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농업경영체 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제출해야 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현장을 누비며 래형 축제로 구성된다. 특히,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과 연계된 ‘DFL 드론레이스’를 중심으로, 국내외의 드론 스포츠 대회, 로봇 테마 전시·체험, 산업전시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될 예정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국제드론제전, D-100 카운트다운 돌입

광한루서 D-100 이벤트 SNS 인증 참여자 경품 증정

남원시(시장 최경식)가 오는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남원 종합스포츠타운 일원에서 개최되는 ‘2025 남원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의 D-100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제전은 드론과 로봇의 융합을 통해 전 세대를 아우르는 미래형 축제로 구성된다. 특히,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과 연계된 ‘DFL 드론레이스’를 중심으로, 국내외의 드론 스포츠 대회, 로봇 테마 전시·체험, 산업전시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될 예정이다.

앞서 시는 개막 100일을 앞둔 지난 7일부터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염원하며 시민과 관광객, 공직자가 함께 참여하는 다채로운 홍보 이벤트를 진행했다. 광한루원과 피오리움 등 주요 관광지에서는 ‘대회 낚사를 잡아라’ 타임스톱 이벤트와 제전 굿즈 증정을 통해 분위기를 고조시켰으며, 남원시청 로비에서는 직원과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캠페인이 펼쳐졌다.

또한 시는 오는 21일까지 SNS 인증 이벤트(남원시 페이스북, 인스타 공식계정 참조)를 운영한다. 드론과 함께한 사진이나 제전 홍보 게시물을 등록한 참여자 중 100명을 추첨해 기프티콘을 증정할 예정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시, 장애인 이용 가능 개방화장실 현황 누리집 게시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장애인 등 편의 증진을 위해 관내 장애인 이용 가능 개방화장실 59개소를 전수조사하고, 그 결과를 대표 누리집에 게시해 장애인이 화장실을 이용할 시 언제든지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장애가 있는 시민과 관광객이 외부 활동 시 장애인 이용 가능 화장실을 찾을 시 정보가 없어 혼란을 겪는다는 의견에 따라 지난 6월 13일에서 이달 2일까지 관공서, 공공시설, 지정 개방화장실 59개소를 대상으로 장애인 이용 가능 여부 등을 조사해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뒀다.

조사 결과 조사 대상 화장실 59개소 중 장애인 이용 가능 화장실은 총 55개소이며, 이 중 24시간 이용 가능 화장실은 15개소, 업무시간 내 이용 가능한 곳은 44개소인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 이용 가능 화장실 정보는 시 대표 누리집 접속 후 분야별 정보 → 복지 건강 → 장애인 분야 → 장애인 개방화장실로 들어가 이용 시간, 소재지, 휠체어 진입 여부, 장애인 표식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의료접근취약 어르신 맞춤형 구강건강관리 제공

순창군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노인 방문 구강건강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해, 가정 방문을 통한 맞춤형 구강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사업은 관내 65세 이상 군민 중 치과 진료 접근이 어려운 거동 불편 어르신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순창군보건의료원 소속 치과 의사와 치과위생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구강 상태를 평가하고 개인별 관리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의료진은 구강 위생 상태와 구강건조증 여부 등을 진단한 뒤, 칫솔질과 치실 사용법, 구강 마사지, 혀 운동, 발음 훈련 등 일상 생활에 유용한 구강관리 교육을 실시하며, 불소도포 등 예방적 처치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상반기 화재 발생건 감소 ‘재산피해 줄고 인명피해 늘어’

완주소방서(서장 이주상)는 2025년 상반기 관내 화재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화재 건수와 재산피해는 감소했으나 인명피해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완주지역 화재는 총 83건 발생해 전년(86건)보다 3건 감소(3.5% ↓)했다. 재산피해는 약 4억 5,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4억 원(46.6%) 감소하며 피해 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명피해는 총 6명으로 이 중 사망자 2명이 포함되며, 전년과 비교해 사망자가 증가했다.

특히 부상자 수는 전년과 동일하나, 인명 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화재 원인으로는 여전히 부주의가 절반 이상(50.3%)을 차지하며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고, 전기적 요인(21.8%)에 의한 화재도 증가 추세를 보였다. 계절별로는 3월과 4월에 화재가 집중돼, 불철 화재 예방 활동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부각됐다.

완주소방서 관계자는 “재산피해 감소는 주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 덕분”이라며 “다만 인명피해가 발생한 만큼, 앞으로도 화재예방 교육과 현장 중심의 안전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소방서는 하반기에도 ‘찾아가는 화재예방 교육’, ‘주요 시설 점검’ 등 군민 체감형 예방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군, ‘근대5종 열전’ 스포츠 도시 위상 높였다

한국실업연맹회장배 대회 성료 완주군청 선수들 금은 획득

완주군이 주관한 ‘제12회 한국실업 연맹회장배 전국근대5종대회’가 선수와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대회는 지난 3일부터 5일간 완주군 일원에서 열렸으며,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완주에서 개최된 전국 규모의 근대5종 대회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근대5종 선수들이 열띤 경쟁 속에 최고의 기량을 펼쳐며 완주의 스포츠 열기를 더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23개 읍면동 순회 “현장 목소리 듣는다”

지역 이·통장 만나 민심 청취 형식 탈피 격의 없는 소통 추구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이달 8일부터 22일까지 14일간 관내 23개 읍·면·동을 직접 방문해 이·통장 및 주요 사회단체장들과 함께하는 순회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는 각 읍면동 회의실에서 소규모로 열리며, 이·통장을 비롯해 발전협의회장, 노인회장, 남녀 새마을지도자 회장 등 지역 사회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민생 현안과 시정 방향에 대해 하심탄화회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남원시는 간담회를 통해 준향제를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찾아가는 지적재조사 현장사무소’ 운영

고해상도 영상으로 경계 확인 고령·이주민 맞춤형 안내 강화

순창군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민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지적재조사 현장사무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군은 지난달 20일 ‘2025년 구곡·자양·서호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토지 현황 조사와 측량을 마쳤으며, 바쁜 영농철로 인해 군청을 방문하기 어려운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을 위해 직접 마을을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장에는 담당 공무원과 한국국토

정보공사(LX) 직원이 상주하며, 고해상도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활용해 지적공부상 경계와 실제 사용 현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토지소유자들이 경계를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 원활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군은 고령자나 다문화 이주여성 등 다양한 주민들이 사업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순창군 민원 안내 만화’를 제작했으며, 이를 우편과 문자(SMS)를 통해 발송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이번 현장사무소는 14일부터 16일까지 서호지구를 시작으로 23일까지 각 마을회관에서 운영된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공공배달앱으로 소상공인 지원 강화

공공배달앱 ‘막개비’ 업무협약 지역화폐 결제 연동

완주군이 소상공인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지역화폐와 연계한 착한 소비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8일 완주군은 완주경제센터 2층 교육실에서 공공배달앱 운영사인 ㈜막개비와 ‘완주군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유희태 완주군수와 권순범 ㈜막개비 대표를 비롯해 완주 경제센터장, 완주군소상공인연합회장,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완주지부장, 완주 경제살리기운동본부장, 삼례시장·고산미소시장 상인회장 등 지역 경제 관련 단체장들도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낮은 수수료 기반의 공공배달앱 운영 ▲지역화폐(완주사랑상품권) 결제 연동 ▲소상공인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동 노력에 합의했다.

현재 전국 다수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막개비’는 평균 1.5% 수준의 중개수수료, 입점비 및 광고비 무료, 지역화폐 연계 할인 혜택 등을 강점으로 민간 배

달앱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민간 배달앱의 높은 수수료와 광고비가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배달앱은 공공성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와의 상생을 추구하는 플랫폼”이라고 밝혔다.

군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공공배달앱 ‘막개비’의 조기 정착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군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완주=김명곤기자

수소도시 완주, 글로벌 벤치마크 ‘주목’

남아공 정부, 수소정책 견학 ‘완주형 수소 산업모델’ 관심

수소도시 완주를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지난 7일 남아공 정부 관계자들이 완주군의 수소 산업 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직접 현장을 찾았다.

이날 남아프리카공화국 전기에너지부 및 과학기술혁신부 등 정부 관계자 11명은 완주군의 수소 생산·공급기지, 수소 충전소 등 수소 전주기 클러스터 곳곳을 방문했다.

방문단은 먼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을 찾아 수소 상용차 생산과정과 기술 현황 등을 청취하고, 정부의 수소 모빌리티 확산 전략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어 완주군 수소 전주기 클러스터를 방문해 수소 생산 과정과 공급 구축만을 직접 견학하고, 완주군의 수소 산업 인프라 구축 현황과 수소도시 조성 전



지난 7일 남아공 정부 관계자들이 완주군의 수소 산업 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직접 현장을 찾았다. <사진=완주군>

략 등을 살펴보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현재 완주군은 수소 특화 국가 산업단지 조성 등 수소기업 육성을 위한 국내 최고 수준의 다양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관계자는 “수소 산업 글로벌 허브를 표방하는 완주군의 인프라 구축이 무척 인상적”이라며 “자국의 청정에너지 정책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폭염도 재난!’ 시민 건강 보호 총력

온열질환 응급감시체계 운영 건강취약계층 집중관리 추진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온열질환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전면적 대응 체계를 가동해 건강취약계층 등 시민 건강보호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남원시는 지난 2일 오후 4시부터 현재까지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다. 폭염은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되는 현상으로,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표적인 기상 재난이다.

남원시에서는 현재까지 2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다.

이에 남원시보건소는 지난 5월 15일부터 남원의료원과 협력해 ‘온열질환 응급감시감시체계’를 운영하며, 폭염특보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남원시 안전재난과 폭염 T/F팀과 상시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해 온열질환 발생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있다.

또한, 6월부터 방문보건팀, 보건지(진료)소 방문사업인력 50명으로 방문건강관리지원단을 구성했으며 9월까지 폭염대비 취약계층 집중 방문건강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방문건강관리 대상자의 독거여부, 거동가능여부, 질환유무 등

분류를 통해 집중관리 대상 3,000여명을 선별해 직접 방문 또는 전화, 문자로 대상자의 안부 확인 및 건강 모니터링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며, 이 과정에서 건강 이상 징후 발견 시 신속히 119 및 지역 의료기관으로 연계 조치하는 등 적극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인명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읍면동 무더위 쉼터 경로당 이용 어르신에게는 열사병, 열탈진과 같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폭염 대비 행동요령 및 응급처치 교육도 실시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익산 영등1동, 밤길 안전지킴이 '소라봉사단' 활동 시작

익산시 영등1동은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소라봉사단'이 출범했다고 8일 밝혔다. 소라봉사단은 영등1동 주민자치회(회장 손수길) 위원들로 구성된 자율봉사 조직으로, 5조 36명으로 구성됐다. 실제 지난 7일 저녁 순찰을 진행하며 영등1동 주민들의 안전한 밤길을 위한 활동에 돌입했다. 앞으로 주 1회 정기적인 야간 순찰을 통해 범죄 예방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후미진 골목과 학교 주변, 공원, 놀이터 등 범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실시한다.

/익산=최준호 기자

박순덕 할머니 고향 정읍에 장학금 4000만 원 기탁

“고향 아이들 위해”

정읍 칠보면 출신의 박순덕(89) 할머니가 고향 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 4000만원을 기탁하며 다시 한 번 따뜻한 울림을 전했다. 시에 따르면 울산에 거주 중인 박순덕 할머니는 지난 7일, 정읍시 민장학재단에 장학금 40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지난날 11일 '희망 2025 캠페인 유공자 시상식'에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표창을 수상한 뒤, 그 기쁨을 고향과 나누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됐다. 칠보면 수청리에서 태어난 박

할머니는 폐지와 강통을 주워 평생 모은 재산으로 꾸준히 고향에 기부해 왔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 칠보면에 기탁한 금액만 1억 9650만원에 달하며, 이번 장학재단 기탁을 포함하면 누적 기부액은 약 2억 4000만원에 이른다. 박 할머니는 “내가 태어나고 자란 정읍이 늘 마음속에 있다”며 “고향의 후배들이 꿈을 잃지 않고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탁하게 됐다”고 전했다. 또 “앞으로도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삶을 계속 살고 싶다”고 따뜻한 뜻을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고창군 천하건설 유회중 대표, 200만원 장학금 기탁

고창군 (유)천하건설 유회중 대표가 8일 고창군청을 찾아 2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하며 고창 발전을 위한 미래 주역들에게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유회중 대표는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해왔다. 유씨는 “고창의 발전을 이끄는 인재들에게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따뜻한 소감을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제39회 전국춘향미술대전 종합대상에 추향만 작가 ‘영예’

시상식 성황리에 마쳐

남원시(시장 최경식)가 후원하고 (사)한국미술협회 남원지부가 주관한 제39회 전국춘향미술대전 시상식이 지난 5일 토요일 오후 2시, 남원문화예술회관 소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미술대전에는 전국 각지에서 총 507점의 작품이 출품되었으며, 공정한 심사를 거쳐 총 280명의 수상자가 배출되었다. 또한 7명의

초대 작가가 신규 지정되어 지역 예술계의 외연을 넓혔다. 시상식에는 이성호 남원시 부시장, 김영태 남원시의회 의장, 이정란·임종명 전북특별자치도 도의원 등을 비롯한 주요 내빈과 미술계 인사, 수상자, 시민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종합대상은 서양화 부문 추향만 작가의 ‘바람이 남긴 얼굴’이 차지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군산시 착한가게 '미스터인테리어', 어려운 이웃 위한 성금 기탁

군산시 나운2동행정복지센터는 나운2동 '착한가게'인 '미스터인테리어'가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기탁식에 참여한 나운2동 대표는 “지역 주민들께서 우리 업체를 애용해주셔서 잘 운영할 수 있었다.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채워지기를 바라고,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군산=지승길 기자



제4회 완주군수배 전북도 장애인 탁구대회 개최

제4회 완주군수배 전북도 장애인 탁구대회가 완주반다비체육센터에서 최근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는 선수단과 심판진을 포함해 2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완주군장애인체육회장이 유회태 완주군수를 비롯해 완주군의회의원,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장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유 군수는 환영사를 통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대회에 참가해주신 선수와 내빈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체육활동이 활발히 이어져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는 지역사회와의 협력 속에 더욱 뜻깊게 치러졌다. 상사태 레스토랑에서는 대회 운영을 위한 인력 봉사, 완주군자원봉사센터는 참가자들을 위한 팔빙수 나눔, 삼례농협은 대회 물품 후원으로 장애인 체육행사를 지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국립임실호국원 방문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허진)은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고 애국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8일 국립임실호국원을 방문해 참배하고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허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10여 명이 참석해 현충탑에 헌화하고 묵념하며, 나라를 위해 희생한 호국영령의 넋을 기렸다. 참배 후에는 국립임실호국원 결

연묘역을 방문하고, 현충관 호국안보 전시관을 둘러보며 전쟁 역사와 호국영령의 삶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허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지역과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호국영령을 기리는 일은 지역 공공기관으로서 당연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책임 있는 사회공헌과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장수군 천천면, ‘찾아가는 복지사랑방’ 운영

장수군 천천면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주민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찾아가는 복지사랑방’을 운영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7일 3개 마을을 시작으로 앞으로 5일간 총 15개 마을을 순회하며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면 복지 담당 공무원과 방문간호사 등 실무 인력이 직접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찾아가 정서적·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거 어르신 등에게 기초 건강상담과 복지 상담을 함께 진행한다. /장수=최진수 기자

익산 모현동 새마을부녀회, 홀몸 어르신께 삼계탕 나눔

익산시 모현동은 새마을부녀회(회장 최남숙)가 지역 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사랑의 삼계탕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부녀회원 27명은 초복을 앞두고 홀몸 어르신과 취약계층 50여 가구에 직접 만든 삼계탕을 정성껏 전달했다. 삼계탕을 나누며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고, 생활 속 불편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폈다. /익산=최준호 기자

무더운 여름철, 자동차 안에 놔두면 안되는것!

손 소독제



전자기기와 운동화



안경과 선글라스



라이터, 스프레이, 페트병



〈一事一言〉



전쟁 문턱까지 끌고갔던 정권의 안보 조작질(1)

김종대
국방전문가·전 국회의원

2023년 11월부터 2024년 가을까지, 우리 군의 대북 활동들을 차례로 되짚어보면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다. 2023년 11월 합참 수뇌부 책상 위에 조용히 놓였던 ‘적 4군단 합동타격계획’ 문건. 2024년 1월부터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서북해역 공해상을 향한 수백 발의 포 사격. 실탄 장착 상태로 북한 GP 인근까지 접근 비행한 아파치 헬기, 그리고 10월 평양 상공에 출현한 우리 군의 드론. 모두 각각의 독립된 군사 활동처럼 보이지만, 이들을 하나의 궤적 위에 올려놓는 순간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진다. 군은 무엇을 보고 있었고, 누구를 향해 무기를 준비했으며, 결국 무엇을 막으려 했던 것인가.

2024년 10월 3일부터 10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백령도에서 이륙한 드론이 평양 상공을 비행하며 전단을 살포했다. 외부성 청사, 지하철 승리역, 국방성 청사까지 평양의 심장부를 훑는 노선이었다. 무인기에는 김정일을 풍자한 캐리커처, 북한 지도부의 사치생활을 폭로한 사진, K-POP이 담긴 USB가 실려 있었다. 군 내부에서는 성공률이 20%밖에 안 되는 고위험 작전이라 했고, 실제로도 북한은 즉각 ‘도발 원점 타격’을 경고하며 전사 경계 태세에 돌입했다. 이후 평양 시내에서 추락한 드론의 잔해를 공개하며 “남측 군용 드론과 동일 기종”이라고 주장했다. 무인기가 다녀간 직후, 드론작전사령부에는 대

통령실 차원의 ‘격려금’이 전달됐다. 드론작전사 관계자의 제보에 의하면 북한의 성명에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손뼉치며 좋아했다”고 한다.

이런 일이 있었다. 비슷한 시기 합참 법무실에는 국군 심리전단 간부가 법률 자문을 요청해 왔다. “달라나 USB를 풍선에 넣어 보내도 되느냐”는 자문 요청에 합참 법무관은 난감한 표정을 짓자 심리전단 요원은 “군에서 안 보내는 척하고 보내야 한다”고 말하며 웃었다고 한다. 전략인가, 농담인가. 어쨌든 이 작전은 북한을 향해가기보다 국내 여론을 향해 날아간 ‘심리전 시연’처럼 보인다. 어느 순간부터 심리전단은 북한에 보낼 전단을 대규모로 준비했고, 또 어느 순간에 군이 제작한 것으로 보여지는 전단이 드론으로 평양 시내에 뿌려졌다. 같은 시기에 전방의 대북 확성기는 한껏 볼륨을 높이고 있었다.

이 무렵 서해에서는 대규모 실사격 훈련이 반복됐다. 1월, 2월, 6월, 9월. 정례화된 포 사격은 매번 수백 발 단위로 이뤄졌다. 훈련에 동원된 장비는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로켓, 스파이크 미사일. 한국이 수출을 노리는 대표적 방산 제품이다. 그런데 이 포들은 단 한 번도 북한을 향해 쏘지 않았다. 모두 남서쪽 공해상, 가상의 표적을 향해 사격됐다. 2월 훈련에는 국제 참관단도 참석했다. 군사 대응이자 동시에 방산 시연 회였던 셈이다. 정치-군사적으로

매우 민감한 수역인 백령도와 연평도 일대에서 2024년에 갑자기 사격 훈련이 쏟아진 데는 2018년 남북이 체결한 군사합의서가 무력화되는 배경에서 이루어졌다. 1월에는 북한이 해안포 사격을 하여 이에 대응한 사격이라 하더라도 6월과 9월의 사격은 거주장스러운 군사합의서가 사라진 공백에서 한껏 행동의 자유를 누리며 무력을 과시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실려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북한은 이 사격에 대해 별다른 대응 조치를 하지 않았다.

작년 9월에서 10월로 이어지는 인위적인 긴장 조성 시점에 한국 군부는 제언의 여건 조성을 넘어 결정적 작전도 준비한 것으로 보여진다. 광종군 전 특수전사령관 은 올해 국회 국정조사특위 증인 출석에서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지난해 10월 초에서 중순 전후로 기억한다”며 “김용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북한 오물풍선 상황이 발생하면 합참 지통실(지휘통제실)에서 원점을 강력하게 타격하겠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해안포 사격훈련에서 드론 투입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이 중요해 보인다. 그러나 이런 작전은 이미 그 1년 전부터 준비되었다는 정황도 있다.

2023년 11월 15일, 합참은 대통령실의 지시로 ‘서북도서 도발 시적 4군단 합동타격계획’ 문건을 작성했다. 민간 피해가 발생할 경우 북한 4군단 전체 지휘소와 통

신시설, 병영지역을 동시에 타격하는 계획이었다. 그리고 2024년 1월 4일, 타격 대상은 적 2, 5, 1군단까지 확장됐다. 내부에서는 “이 문건이 실제로 발동되면 전면전”이라며 실행 불가 방침을 전제로 만들었다고 증언한다. 법무실은 이 작전의 발동 조건을 제한하기 위해 ‘결심조건표’를 작성했고, 합참은 결국 2024년 4월부터 해당 계획에 기반한 실전 훈련을 시작했다. 이 문건의 존재를 염두에 두고 2024년의 해상 사격훈련을 이어서 보면 단순히 북한의 도발 대응이라기보다, 북한의 군사적 요충지에 대한 전면 타격 훈련이 아닌가, 라는 의문이 든다. 이미 북한 전역에 대한 공격 시나리오 오는 책상 위에 올라 있었고, 지휘 체계는 “미국이 눈치채기 전 쥘싸게 시행한다”는 기조로 움직이고 있었다. 군이 아니라 권력이 먼저 뛰기 시작한 것이다.<계속>

본 칼럼은 시민연론 민들레에게 게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외부원과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설

전북, 미래 먹거리 퍼지컬AI로 기회의 문 열자

전북이 마침내 인공지능 산업의 선두에 나서며 새만금 이후 무려 30여년 만에 손에 잡히는 ‘미래 먹거리’를 확보했다. 이는 지역의 산업 지형과 경제 체질을 송두리째 바꾸는 중대한 전환점이다. 최근 전북도청에서 열린 ‘퍼지컬AI 국가 전략사업 예산 확보’ 기자회견은 그 상징적인 선언이었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당초 추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소위의 논의를 거쳐 최종 반영되면서 급물살을 탔다. 퍼지컬AI 핵심기술 실증사업의 일환으로 확보된 국비 229억은 지방비 및 민간투자 153억을 더해 올해만 총 382억이 투입되며 향후 5년간 1조 규모로 확장될 전망이다. 전북이 대한민국 최초의 퍼지컬AI 실증 거점으로 본격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퍼지컬AI는 인공지능이 물리적 세계와 직접 상호작용하는 기술로, 로봇, 자율주행, 스마트 제조, 스마트 모빌리티 등 다양한 미래 산업의 근간이 된다. AI가 단순한 소프트웨어를 넘어 현실의 기계와 기기를 움직이고 스스로 학습하며 진화하는 ‘지능형 하드웨어’로 확대되는 이 흐름 속에서 전북이 거점으로 부상했다는 것은 실로 역사적인 일이다.

그동안 전북은 산업기반 부족과 청년 유출, 낮은 경제 성장률 등으로 ‘소외의 땅’이라는 오명을 감내해 왔다. 새만금 개발이 지역 발전의 중심점이 되리라는 기대는 수차례 좌절됐고 산업 인프라 구축은 매번 ‘지방 소외’ 논란 속에 뒷전으로 밀렸다. 그런 전북이 이제는 국가전략사업의 주무대에 서게 된 것이다. 정동영

의원을 비롯한 정치권과 학계, 산업계의 공조가 이뤄낸 이 결실은 전북이라는 지역이 이제부터는 미래 기술의 생산지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다.

물론 시작이 반이라고 했다. 퍼지컬AI 실증사업은 이제 첫 단추를 끼운 셈이다. 제대로 된 생태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과제가 산적해 있다. 기술 개발은 물론, 이를 뒷받침할 제도 정비, 인재 양성, 산업 생태계 조성, 지역대학과 연구기관과의 협력 등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한다. 무엇보다도 지역에 실질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이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

정부 역시 지역과의 보폭을 맞춰야 한다. AI는 한 세대가 불과 6개월에 불과할 정도로 빠르게 진화하는 분야다. 지방 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보다 과감한 권한 이양과 제도적 유연성이 뒤따라야 한다. 중앙정부는 전국 어디서든 미래 기술이 꽃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진정한 ‘균형 발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번 퍼지컬AI 실증사업 유치는 새만금 이후 가장 실질적인 전북발전의 출발점이다. 지역산업의 전환, 청년 인재의 유입,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등 다각도의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도정과 도민 모두가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하고 뒷받침해야 한다.

전북이 퍼지컬AI의 메카가 되면 이는 곧 세계 속의 메카가 되는 길이다. 대한민국의 AI 주권을 실현하는 데 전북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실행이 절실히 요구된다.

문화재열전



화암사 동종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유물, 불교공예, 의식법구
-지정일- 1974년 9월 27일
-시대- 조선시대
-소재지- 완주군 경천면
화암사길 271 (가천리)

▲오늘의시

너무 이른 또는 너무 늦은 / 나희덕

사랑에도 속도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술안룩파리가
숨을 헐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한 순간인 듯 한 계절인 듯
마음이 병들고도

시인 약력 : 1966년 충남 논산 연무대 출생. 연세대 국문학과와 동 대학원 박사과정을 졸업했다. 1989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시 ‘뿌리에게’가

남는 게 있다면
먹힌 마음을 스스로 달고
서 있어야 할
길고 긴 시간일 것입니다

수시로 병들지 않는다 하던
靑靑의 숲마저
예민해진 잎살을

당선되어 등단했다. 시집으로 ‘뿌리에게’ ‘그 말
이 입을 물들였다’, ‘파일명 서정시’ 등이 있고 산
문집으로 ‘반 톨의 물’, ‘저 불빛들을 기억해’ 시

마디마디 세우고
스치이는 바람결에도
빛 그림자를 흔들여낼 것입니다

멀리서 보면 너무 이른,
또는 너무 늦은
단풍이 든 것만 같아
그 미친 빛마저 굶습니다

론점으로 ‘보랏빛은 어디에서 오는가’ 등이 들어
있다. 김수영문학상과 미당문학상, 백석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전북(전북) 444		2011년 10월01일 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00022(발행 우)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김관준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사 010-96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원지사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주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원주지국 010-3672-0308
팔복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전지사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JBT

도민의 제보가 지역사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인터넷 신문- <https://www.jeonbuktimes.co.kr>
광고문의-282-9601 기사제보 -282-9600 신문 구독 828-9603

강임준 군산시장 “균형발전 새로운 표준, 군산이 증명하겠다”

- ▶ 민선 8기 3년 성과와 미래전략 발표
- ▶ “시민과 함께, 변화 속도 높일 것”

강임준 군산시장이 민선 8기 3주년을 맞아 그간의 주요 성과를 시민과 공유하고, 새 정부와의 협력체계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군산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4대 전략과 비전을 제시했다.

강 시장은 지난달 30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군산이 그간 선제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들이 새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 많다”라며, 지방 균형발전을 군산이 선도하여 시민과 함께 “더 큰 군산을 반드시 완성하겠다”라고 밝혔다.

■ 위기를 기회로 바꾼 군산, 시민 참여로 혁신 이끌어

강 시장은 먼저 “군산은 위기 속에서도 좌절 대신 연대, 주저함 대신 도전을 선택했다”라며 지난 3년의 주요 성과를 설명했다.

일례로 전국 최초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 출시와 군산사랑상품권 누적 유통액 3조 원 돌파, 7,000개 강좌와 4만 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동네문화카페의 성공 뒤에는 언제나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뢰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산업구조 전환도 큰 성과로 꼽았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총 10조 원 규모의 투자유치 △8,000여 명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군산형 RE100 실증단지 구축 등을 통해 군산이 첨단산업 거점 도시로 자리매김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 정책도 강조했다.

중·고등학생 시내버스 전면 무상화, ‘공부의 명수’ 운영 등을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였고 아동·청소년 심리상담 강화 등을 통해 아이들이 공평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제감형 교육복지를

실현했다고 설명했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민생 혁신 성과로는 △군산 전북대병원 착공 △심야 어린이병원·약국 운영 △고위험지역 재난대응조기경보시스템 도입 △도심 속 시민 친화 숲 조성 등을 꼽았다.

무엇보다 군산시민의 단합으로 쟁취한 ‘새만금 신항만 원포트 지정’은 시민의 힘으로 중앙정부를 움직인 대표 사례로, 군산이 광역 통합 항만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됐으며 시민들에게 거듭 감사를 전했다.

■ 새 정부와의 협력 본격화 4대 전략으로 지속 성장

이어 강 시장은 정책 완성을 위한 본격 실행 단계에서, 새 정부와의 협력체제와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고히

할 4대 전략을 발표했다.

4대 핵심 전략은 ① 에너지 기반 신성장 산업 육성 ② 조선·미래차 중심 첨단 제조업 재편 ③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실현 ④ 균형발전 선도도시 ‘더 큰 군산’ 완성이다.

세부적으로는 첫째, 에너지 기반 신성장 전략으로 새만금 태양광 2공구 운영과 해상풍력 1GW 프로젝트 등을 추진해 재생에너지 산업을 확장하고, RE100 산업단지를 활성화해 전기를 생산·수출하는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강 시장은 “전 정부의 원전 중심 정책으로 위축 위기에 처했던 재생에너지 분야가, 새 정부의 5대 성장과제로 재조명되는 지금이 군산 예견 기회”라며, “그간 흔들림 없이 준비해온 만큼 누구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둘째, 친환경 선박 중심의 조선산업 재

편과 전기차·이차전지·자율주행 등 미래차 산업 생태계를 완결형으로 구축해 첨단제조업을 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입주기업 중심의 테스트베드, 인력양성, 국가공모 연계 등을 통해 완결형 산업 생태계를 구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셋째, 교육과 복지, 심리 돌봄과 주거 지원을 포괄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아이와 가족이 머무르고 싶은 도시, 믿고 키울 수 있는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선도모델인 ‘더 큰 군산’을 향한 구상도 밝혔다. 강 시장은 새만금 신항만 원포트·청정에너지 클러스터·지역 주도형 공공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지역 주도 균형발전 전략의 선봉에 서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특히 2027년 완공 예정인 서해선·장

항선 복선전철화 사업을 통해 군산~수원 간 이동시간이 약 1시간 30분대로 단축되면, 물류·산업·정주 여건까지 획기적으로 개선되므로 군산이 서해안 산업·물류 축의 핵심 연결지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시민과 함께 강한 군산, 균형발전의 모범 완성

강임준 시장은 “군산은 위기 속에서도 길을 찾고, 시민의 힘으로 해답을 만들어 왔다”라며 “앞으로는 ‘강한 군산, 균형발전의 롤모델 도시’를 향해 더 멀리 나아가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 전환과 미래 신산업 유치, 지방 균형발전을 군산이 선도하겠다.”라며 “시민과 함께 더 큰 군산의 길을 반드시 완성하겠다”라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